

사회정체성 불확실성과 자기-해석이 내집단 동일시 및 집단 이탈의도에 미치는 영향: 조절된 매개모형 검증

정 옥 아 최 훈 석[†]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는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정체성-불확실성, 소속감-불확실성)과 자기-해석의 상호작용이 내집단 동일시를 매개로 내집단 이탈의도를 예측하는 모형을 검증하였다. 내집단을 '한국인'으로 제시하여 한국 대학생($N = 121$)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집단의 전형적 특징이 모호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체성-불확실성은 상호의존적 자기-해석보다 독립적 자기-해석이 우세한 경우 내집단 동일시를 부적으로 예측했고, 내집단 동일시가 약할수록 내집단 이탈의도가 강하게 나타나서 조절된 매개효과가 관찰되었다. 반면에 자신이 내집단의 전형적 구성원인지가 불확실할 때 경험되는 소속감-불확실성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사회정체성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가 지니는 함의와 장래 연구 과제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회정체성 불확실성, 자기-해석, 내집단 동일시, 내집단 이탈의도

[†] 교신저자: 최훈석,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mail: hchoi@skku.edu



© 2024,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다양한 집단에 소속되어 삶을 영위하면서 소속욕구를 충족시키고 내 집단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 자존감을 유지한다. 집단소속이 제공하는 이득은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 신념 및 정서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러한 긍정적 심리경험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집단소속의 유의미성을 저하시킨다(Tajfel & Turner, 1986). 특히 사회정체성은 개인의 자기개념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집단에 연합된 사회정체성에 불확실성(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을 경험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심리 및 행동이 동기화된다(Wagoner et al., 2017). 최근 서구에서 시도되고 있는 사회정체성 불확실성 연구들은 내집단 동일시 및 내집단 이탈의도를 중심으로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이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방면의 연구들은 암묵적으로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이 내집단 동일시를 저해하고, 이를 통해 내집단 이탈의도가 조형된다는 가정을 근간으로 하지만, 이러한 매개경로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사회정체성 불확실성-내집단 동일시-내집단 이탈의도 간의 매개경로를 확인하고, 이 모형에서 개인의 자기-해석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탐색함으로써 사회정체성 불확실성 연구를 확장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정체성 불확실성과 집단 동일시

불확실-정체성 이론(uncertainty-identity theory; Hogg, 2007)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느끼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동기가 내집단 동일시의 핵심 기제라고 주장한다. 즉, 자기개념에 불확실성을 경험할 때 내집단 동일시를 통해 집단에 공유된 정체성과 내집단 원형을 내면화하고,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구성원들이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고 취급할 것인지를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자기-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불확실-정체성 이론을 검증한 연구들은 자기-개념을 구성

하는 개인정체성(personal identity)에 초점을 두고 이 단면에서 경험되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전반적 자기-불확실성이 내집단 동일시를 유발한다는 증거를 축적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에, 자기개념의 또 다른 핵심 단면인 사회정체성(Tajfel & Turner, 1986)에서 경험되는 불확실성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불확실-정체성 이론이 주장하는 대로 개인의 전반적 자기-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일반 원리로서 집단 동일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다(참조: Hogg, 2021). 그러나 사람들이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을 경험할 때는 내집단 동일시를 통한 불확실성 해소 기제가 작동하기 어렵고, 오히려 내집단 동일시가 저해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는,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은 개인정체성 불확실성과 달리 개인이 속한 집단과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내집단 동일시를 통해 해소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Wagoner 등(2017)은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이 높은 미국인들은 미국에 대한 동일시 수준이 낮고, 미국인들을 하나의 집단적 실체로 지각하는 수준이나 미국인으로서 경험하는 집합적 효능감, 집합적 자존감 수준이 모두 낮음을 보고했다. 한국에서 보고된 연구(최훈석 등, 2019)에서도 하위수준 내집단에 연합된 사회정체성('남한 국민으로서의 사회정체성')이 불확실한 사람들은 남한에 대한 동일시 수준은 낮고 상위수준 내집단인 '한민족'에 대한 동일시 수준이 높아서,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집단이 아닌 대안 집단에 강하게 동일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사회정체성 불확실성과 내집단 동일시의 관계는 내집단 실체성이나 내집단이 개인에게 중요한 정도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예: Jung et al., 2018; Wagoner et al., 2018). 이처럼 최근 보고된 사회정체성 불확실성 연구들은 개인정체성 불확실성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과 상반된 결과를 관찰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정체성 불확실성과 집단 동일시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자기-해석에 따른 차이에 주목하여 사회정체성 불확실성과 내집단 동일시, 내집단 이탈의도의 관계를 조명하였다.

사회정체성 불확실성과 내집단 동일시 및 내집단 이탈의도: 자기-해석의 조절효과

Wagoner 등(2017)은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이 내집단의 전형적 특징(예: 내집단 규범, 가치)이 불확실하다고 느끼는 정체성-불확실성(identity-uncertainty)과 자신이 내집단의 전형적인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소속감-불확실성(membership-uncertainty)으로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자들에 따르면, 개인정체성 불확실성이 내집단 동일시를 강화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두 유형의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은 모두 불확실성을 유발한 내집단에 대한 동일시를 저해한다. 이처럼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이 내집단 동일시를 저해한다는 주장을 수용하기에 앞서 한 가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이 유발하는 효과가 개인의 자기-해석에 따라 상이할 가능성이 있다. 자기-해석은 타인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자기 단면을 강조하고 자기-독특성과 자기-일관성을 추구하는 독립적 자기-해석과, 타인과 연결된 존재로서의 자기 단면을 강조하고 타인과의 유사성 및 자기-인식에서의 상황-의존성이 우세한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으로 구분된다(Markus & Kitayama, 1991). 개인의 자기-해석은 자기에 관한 정의와 인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서 특정 행위지향성을 유발하는 동기적 기초(Kitayama et al., 2007)임을 감안하면,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이 자기-개념에 초래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양상에 있어 자기-해석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그 차이의 양상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가능성을 추론하였다.

먼저, 독립적 자기-해석이 우세한 개인은 자

기-인식과 역할, 태도, 행동을 상황이나 맥락에 관계없이 확실히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Cross et al., 2003; Kitayama et al., 2007). 내집단의 규범과 가치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고 자신이 내집단의 전형적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분명할 때 그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자기-개념의 확실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용이할 것으로 추론하면, 독립적-자기가 우세한 사람들은 사회정체성이 불확실할 때 자기-개념에 큰 위협을 경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집단에 대한 동일시를 유보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우세한 개인은 자기-정의 및 인식의 변동성이 크고 자기-개념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집단에서 경험하는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은 자기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상호의존적 자기가 우세한 경우 내집단의 원형을 자신에게 부과하는 탈개인화(depersionalization)를 통한 내집단 동일시가 아니라 중요 타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계망이 집단심리의 핵심기제라는 주장(Brewer & Yuki, 2007)과 궤를 같이한다. 이러한 추론에 따르면, 특정 집단에서 경험하는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이 내집단 동일시를 저해하는 효과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보다 독립적 자기-해석을 우세하게 지닌 개인에게서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두 유형의 사회정체성 불확실성 가운데 소속감-불확실성은 개인이 현재 속한 집단이나 사회범주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에서의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이러한 인식은 모든 인간의 본원적 욕구인 소속욕구를 위협하는 요인이다(Baumeister & Leary, 1995). 소속감-불확실성이 사회적 존재인 모든 개인에게 위협이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소속감-불확실성을 유발하는 집단은 집단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어렵고 개인에게 유의미한 심리적 경험을 제공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자기-해석의 차이에 관계없이 내집단 동일시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확인하

는 것에 더해,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의 결과변수로 내집단 이탈의도를 예측하는 모형을 탐색하였다. Wagoner와 Chur(2024)는 교회나 직장에서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을 경험하는 미국인들은 해당 집단을 이탈하려는 의도가 강함을 보고하였고, Jung 등(2019)의 연구에서는 국가정체성이 불확실한 한국인들은 다른 국가로의 이민의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들을 사회정체성 불확실성과 내집단 동일시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와 함께 고려하면,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은 내집단 동일시를 저해하고, 이를 통해 내집단으로부터의 이탈의도를 조형함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집단 간 이동(social mobility)에 관한 사회정체성 이론(Tajfel, 1975)의 기본 가정과도 일관된다. 또한, 낮은 수준의 내집단 동일시가 강한 내집단 이탈의도를 예측하는 경로 역시 선행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예: Sani, 2005). 따라서 사회정체성 불확실성과 자기-해석, 내집단 동일시, 내집단 이탈의도의 관계는 하나의 통합된 모형에서 검증함으로써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두 유형의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이 자기-해석과 상호작용하여 내집단 동일시를 예측하고, 내집단 동일시가 내집단 이탈의도를 예측하는 경로를 검증하였다. 위에서 논의한 대로, 자기-해석의 조절효과는 사회정체성 불확실성 유형에 따라 다를 가능성과 일관될 가능성이 모두 있으므로 조절된 매개효과의 방향은 가설로 상정하지 않았다.

연구문제 1: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이 내집단 동일시를 부적으로 예측하고, 내집단 동일시가 내집단 이탈의도를 부적으로 예측하는 매개효과가 자기-해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2: 연구문제 1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방 법

연구 참가자 및 조사 방법

4년제 대학 재학생 1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남성 49명, 여성 72명, 평균연령 21.38세), 참가자들은 연구 참가점수를 부여받았다(IRB 승인번호: SKKU 2023-09-034). Preacher 등(2007, Model 2)에 따르면 중간 효과크기의 조절된 매개모형을 유의수준 .05에서 bootstrapping 기법으로 검증할 때 표본 수 100명의 검정력은 .95에 도달한다.

측정 도구

예측변수: 정체성-불확실성, 소속감-불확실성, 자기-해석

한국인으로서 경험하는 정체성-불확실성과 소속감-불확실성은 Wagoner 등(2017)이 타당화한 척도의 대상 집단을 한국인으로 변환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예비 연구($N = 307$)를 통해 Wagoner 등(2017)이 보고한 2요인 구조를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의 질문지는 정체성-불확실성을 측정하는 6개 문항(예: “한국인 정체성의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한국인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불확실하다는 느낌이 든다”)과 소속감-불확실성을 측정하는 5개 문항(예: “내가 전형적인 ‘한국인’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한 느낌이 든다”, “다른 한국인들에게 내가 ‘한국인’의 대표적인 예로 보일지 잘 모르겠다”)으로 구성되었다(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9 = 매우 동의한다). 소속감-불확실성 측정문항은 예비 연구에서 Wagoner 등(2017)의 연구와 동일하게 교차부하된 한 문항을 제외하고 총 다섯 문항으로 구성한 것이다. 분석에서는 각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평균을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각각 .87, .89).

자기-해석은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한지민, 최훈석, 2021; Euh & Choi, 2023). 이 문항들은 비서구권 국가들의 경

우 개인주의(독립적 자기)-집단주의(상호의존적 자기)의 단일차원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Taras 등(2014)의 메타분석을 근거로 일차원 양극적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양극단에 독립적 대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에 해당하는 진술문(예: “나는 주위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나는 나만의 특별한 점이 많다”, “내가 누구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나는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사람이다”)을 제시하고, 참가자들에게 두 진술문 중 상대적으로 더 동의하는 방향을 선택하여 해당 진술문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도록 했다 (1 = 다소 동의, 3 = 매우 동의). 각 문항에서 독립적 대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진술문의 위치는 무선화하였으며, 각 문항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독립적 자기-해석이 우세함을 의미하도록 6점 척도로 변환하고 8개 문항의 평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Cronbach's $\alpha = .78$).

매개변수 및 준거변수: 내집단 동일시, 내집단 이탈의도

Leach 등(2008)이 제안한 집단 동일시 척도에서 사회정체성 불확실성과 개념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하위요인(결속감, 만족감, 중심성)을 선별하여 내집단 동일시를 측정하였다. 총 10개 문항(예: “나는 ‘한국 사람들’과 유대감을 느낀다”,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이 기쁘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나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부분이다”)을 사용했고(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9 = 매우 동의한다) 전체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88$).

준거변수인 내집단 이탈의도는 선행 연구(Jung et al., 2019)를 토대로 이민의도를 통해 측정했으며 역문항을 포함한 총 3개 문항을 사용했고(예: “나는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싶다”; 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9 = 매우 동의한다) 세 문항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분석했다(Cronbach's $\alpha = .61$). 질문지 마지막에서 측정한 참가자들의 성별과 연령은 모든 분석에서 통제하였다.

분석 절차

SPSS 28.0과 Hayes(2022)의 PROCESS macro v.4.1. Model 8을 사용하여 예측변수인 정체성-불확실성(모형 1) 또는 소속감-불확실성(모형 2), 조절변수인 자기-해석, 매개변수인 내집단 동일시, 그리고 준거변수인 내집단 이탈의도를 포함시켜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5,000 bootstrap resamples, 95% 신뢰구간). 정체성-불확실성, 소속감-불확실성, 자기-해석은 평균중심화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한 유형의 불확실성값을 예측변수로 사용할 때 다른 유형의 불확실성값은 통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변수 간 상관

측정 변수들의 기술통계치와 변수 간 상관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수에서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과 8을 초과하지 않아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Kline, 2011). 상관분석 결과, 선행 연구(Wagoner et al., 2017)와 일관되게 정체성-불확실성과 소속감-불확실성이 정적 상관을 보였고, $r = .50, p < .001$, 정체성-불확실성과 소속감-불확실성은 모두 내집단 동일시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r =$ 각각 $-.33, -.26, ps < .01$. 소속감-불확실성은 독립적 자기-해석, $r = .21, p = .019$, 내집단 이탈의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30, p = .001$. 그리고 내집단 동일시와 내집단 이탈의도 간에는 부적 상관이 관찰됐다, $r = -.44, p < .001$.

가설검증

사회정체성 불확실성과 자기-해석의 상호작용에 따른 내집단 동일시

정체성-불확실성과 자기-해석의 상호작용이

표 1. 측정 변수들 간 상관과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치

	(1)	(2)	(3)	(4)	(5)	(6)	(7)
성별 (1)	-						
연령 (2)	-.38**	-					
정체성-불확실성 (3)	-.16	-.01	-				
소속감-불확실성 (4)	.06	.01	.50**	-			
자기-해석 (5)	.04	.04	-.07	.21*	-		
내집단 동일시 (6)	.05	-.08	-.33**	-.26**	.10	-	
내집단 이탈의도 (7)	.06	-.11	.12	.30**	-.08	-.44**	-
평균	-	21.38	3.70	3.80	3.10	5.59	5.77
표준편차	-	1.88	1.57	1.89	0.90	1.38	1.68
왜도	-	1.36	0.41	0.53	0.23	-0.07	-0.16
첨도	-	1.30	-0.40	-0.52	-0.51	-0.11	-0.49

주. 자기-해석 점수가 높을수록 상호의존적 자기-해석보다 독립적 자기-해석이 우세함을 의미함.

* $p < .05$, ** $p < .01$.

내집단 동일시를 예측했으며, $b = -0.16$, $t(114) = -2.03$, $p = .045$, 95% CI [-0.32, <0.00],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 독립적 자기-해석이 우세할 경우(+1 SD) 정체성-불확실성이 내집단 동일시를 부적으로 예측한 반면, $b = -0.36$, $t(114) = -3.09$, $p = .003$, 95% CI [-0.60, -0.13],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우세할 경우(-1 SD) 정체성-불확실성이 내집단 동일시를 예측하지 못했다, $b = -0.08$, $t(114) = -0.69$, $p = .493$, 95% CI [-0.30, 0.15]. 따라서, 정체성-불확실성을 예측변수로 투입했을 때는(모형 1) 정체성-불확실성이 내집단 동일시를 예측하는 부적 효과가 참가자들이 독립적 자기-해석을 지녔을 때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소속감-불확실성을 예측변수로 투입했을 때는(모형2) 불확실성과 자기-해석의 상호작용이 내집단 동일시를 예측하지 못하였다, $b = -0.09$, $t(114) = -0.94$, $p = .350$, 95% CI [-0.27, 0.10].

내집단 이탈의도에 대한 조절된 매개효과
정체성-불확실성과 자기-해석의 상호작용이

내집단 동일시를 매개로 내집단 이탈의도를 예측하는 모형 1에서 내집단 동일시는 내집단 이탈의도를 부적으로 예측했으며, $b = -0.53$, $t(113) = -4.94$, $p < .001$, 95% CI [-0.74, -0.32],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다, Index = .08, 95% CI [0.00, 0.18]. 반면에, 소속감-불확실성과 자기-해석의 상호작용이 내집단 동일시를 매개로 내집단 이탈의도를 예측하는 모형 2에서는 내집단 동일시가 내집단 이탈의도를 부적으로 예측했으나, $b = -0.50$, $t(113) = -4.81$, $p < .001$, 95% CI [-0.71, -0.30],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Index = .04, 95% CI [-0.05, 0.13](표 2).

논 의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의 두 단면과 자기-해석의 상호작용이 내집단 동일시를 예측하는 경로를 검증한 결과 정체성-불확실성이 내집단 동일

표 2.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검증 결과

예측 변수	준거 변수									
	내집단 동일시					내집단 이탈의도				
	<i>b</i>	<i>SE</i>	<i>p</i>	95% CI		<i>b</i>	<i>SE</i>	<i>p</i>	95% CI	
			하한	상한	하한	상한			하한	상한
(모형 1)										
정체성-불확실성	-0.22*	0.09	.016	-0.40	-0.04	-0.21	0.11	.056	-0.42	0.01
자기-해석	0.14	0.14	.334	-0.14	0.41	-0.23	0.16	.158	-0.54	0.09
정체성-불확실성 × 자기-해석	-0.16*	0.08	.045	-0.32	<0.00	-0.05	0.09	.556	-0.23	0.13
내집단 동일시						-0.53**	0.11	< .001	-0.74	-0.32
소속감-불확실성	-0.08	0.08	.318	-0.23	0.08	0.29**	0.09	.001	0.11	0.47
성별	-0.05	0.27	.866	-0.57	0.48	-0.06	0.30	.836	-0.66	0.54
연령	-0.08	0.07	.253	-0.22	0.06	0.14	0.08	.082	-0.30	0.02
모형 적합도										
	<i>R</i> ²	<i>MSE</i>				<i>R</i> ²	<i>MSE</i>			
	.17**	1.66	.002			.53**	2.15	< .001		
	자기-해석 수준에 따른 정체성-불확실성의 조건부 간접효과									
						-1 <i>SD</i>	0.04	0.06	-0.10	0.16
						<i>M</i>	0.12	0.06	0.00	0.25
						+1 <i>SD</i>	0.19	0.08	0.04	0.36
(모형 2)										
소속감-불확실성	-0.11	0.08	.172	-0.26	0.05	0.27**	0.09	.003	0.10	0.44
자기-해석	0.15	0.14	.298	-0.14	0.44	-0.16	0.16	.331	-0.48	0.16
소속감-불확실성 × 자기-해석	-0.09	0.09	.350	-0.27	0.10	0.13	0.10	.215	-0.08	0.33
내집단 동일시						-0.50**	0.10	< .001	-0.71	-0.30
정체성-불확실성	-0.20*	0.09	.035	-0.38	-0.01	0.22*	0.11	.043	-0.43	-0.01
성별	-0.07	0.27	.794	-0.61	0.47	-0.02	0.30	.960	-0.62	0.59
연령	-0.07	0.07	.321	-0.21	0.07	0.13	0.08	.109	-0.28	0.03
모형 적합도										
	<i>R</i> ²	<i>MSE</i>				<i>R</i> ²	<i>MSE</i>			
	.14**	1.71	.006			.54**	2.13	< .001		
	자기-해석 수준에 따른 소속감-불확실성의 조건부 간접효과									
						-1 <i>SD</i>	0.01	0.05	-0.08	0.14
						<i>M</i>	0.05	0.04	-0.02	0.15
						+1 <i>SD</i>	0.09	0.06	-0.02	0.23

주. 자기-해석 점수가 높을수록 상호의존적 자기-해석보다 독립적 자기-해석이 우세함을 의미함. *b* = 비표준화 회귀계수, *SE* = 표준오차, *CI* = 신뢰구간, *MSE* = 평균제곱오차, *CI* = 신뢰구간. * *p* < .05, ** *p* < .01.

시를 저해하는 효과는 독립적 자기-해석이 우세할 때 관찰되었으며, 정체성-불확실성과 자기-해석의 상호작용이 내집단 동일시를 매개로 내집단 이탈의도를 예측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의 두 단면 중 정체성-불확실성은 상호의존적 자기-해석보다 독립적 자기-해석을 우세하게 지닌 개인에게 더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독립적 자기가 우세한 사람들의 사회정체성은, 상호의존적 자기가 우세한 사람들에 비해, 명확하고 일관되게 정의된 내집단 및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자기-범주화(Turner et al., 1987)가 특히 중요한 요건임을 시사한다. 즉, 집단의 원형이 분명하고 일관되게 정의될 수 있는 상황에서 탈개인화를 통한 내집단 동일시가 촉진된다는 주장(Turner & Reynolds, 2012)은 특히 독립적 자기에 해당함을 시사한다. 이 해석은 문화수준에서 동서양의 집단심리를 분석한 결과 내집단 원형(ingroup prototype)에 대한 동일시 기제는 동양인보다 서양인의 집단심리에서 우세하게 작동한다는 주장(Brewer & Yuki, 2007)이 개인수준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소속감-불확실성의 경우 내집단 동일시 및 내집단 이탈의도와 부적 상관을 보이기는 했지만, 본 연구에서 상정한 조절된 매개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소속감-불확실성은 집단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전형성 지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집단에서 자신이 전형적인 성원인지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소속감 추구라는 인간의 본원적 욕구를 저해하므로 개인의 자기-해석에 관계없이 유사한 수준의 위협을 유발한 데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이 집단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내집단에 대한 개인의 태도(예: Wagoner et al., 2018)나 집단 실체성과 같은 집단 속성(예: Jung et al., 2019)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자기-해석이라는 개인차 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자기-해석이 사회정체성 불확실

성과 내집단 동일시의 관계를 조절함을 보인 점에서 관련 연구를 확장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이 내집단에 대한 동일시를 매개로 내집단 이탈의도를 예측하는 경로를 관찰함으로써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의 효과를 상세화하였다.

보다 중요하게, 본 연구는 사회정체성 불확실성과 자기-해석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서, 불확실-정체성 이론(Hogg, 2007)의 보편성 가정은 개인의 자기-해석이나 문화수준에서의 자기-개념 차이를 고려하는 방향으로의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절변수인 자기-해석을 개인수준 변수로 연구하였으나, 문화비교 연구에서는 자기-해석에서의 차이를 통해 정서, 인지, 행동의 문화차이를 추론하는 시도가 자주 발견된다(참조: Kitayama et al., 2007; Vignoles et al., 2016). 자기-개념의 불확실성이 개인에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따라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동기가 범문화적인 현상인지(Hogg, 2007), 아니면 문화적 특수성을 추론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장래 연구의 대상이다. 일례로, 변증법적 사고와 위협에 대한 해석 및 대처에서의 문화차이를 다룬 선행 연구들에서는 변증법적 사고가 우세한 동아시아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양 문화권의 사람들보다 코로나19와 같은 부정적인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예: Ji et al., 2021),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예: Cheng, 2009). 변증법적 사고와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하면(Nisbett et al., 2001),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의 효과에 대한 자기-해석의 조절효과는 문화비교 연구로 확장하여 새로운 통찰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가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점을 고려하면, 자기-해석에서의 국가수준 차이를 함께 분석하는 비교 연구 역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한국 사회의 주요 현상 가운데 하나로 등장한 젊은 세대의 높은 퇴사율과 이직률, 소위 '탈조선'이라고 불리우는

내집단으로부터의 심리적 이탈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사회정체성 불확실성과 자기-해석, 내집단 동일시의 역할을 조명하는 것 또한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잠재적 기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방향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본 연구는 국가라는 사회 범주에 대한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의 효과를 다루었다. 그러나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을 지닌 개인의 자기-인식과 사회 행동에는 특히 중요한 타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Kitayama et al., 2007), 내집단의 성질에 따라 자기-해석의 조절효과가 상이할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을 지닌 개인에게는 국가라는 사회 범주에 대해서 경험하는 사회정체성 불확실성보다 가족이나 직장, 친구관계 등 중요한 타인들로 구성된 관계망에서 경험하는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이 더 큰 자기-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의 사회정체성이 지니는 고유한 구조(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층소구조)에 주목하여 각 수준에서의 사회정체성 불확실성과 자기-해석의 상호작용을 검증하는 작업, 그리고 고질적 갈등이 존재하는 집단 간 맥락에서 사회정체성 불확실성과 자기-해석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작업도 집단 간 관계 연구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반복검증하는 것 역시 중요한 장래 연구의 과제이다.

저자소개

정옥아는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동대학원에서 사회심리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연구 관심사에는 다양한 수준의 심리적 위협, 주거환경 등의 사회생태학적 요인, 사회정체성이 있다.

최훈석은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집단 과정 및 집단 간 관계를 연구한

다. 최근에는 집단주의 가치와 독립적 자기의 시너지 모형을 적용하여 집단 효과성, 집단 간 화해와 갈등해소, 집단에서 의(義)와 충(忠)의 발현, 개인과 집단의 공동번영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 최훈석, 이하연, 정지인 (2019). 층소된 사회정체성 구조에서 정체성 불확실성과 내집단 동일시, 남북한 화해 태도 및 행동의도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3(4), 45-59.
<https://doi.org/10.21193/kjspp.2019.33.4.003>
- 한지민, 최훈석 (2021). 코로나 19 대유행 시기 집단주의 성향과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간의 관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주관적 규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3), 217-236.
<http://dx.doi.org/10.20406/kjcs.2021.8.27.3.217>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https://doi.org/10.1037/0033-2909.117.3.497>
- Brewer, M. B., & Yuki, M. (2007). Culture and social identity. In S. Kitayama & D. Cohen (Eds.), *Handbook of cultural psychology* (pp. 307-322). The Guilford Press.
- Cheng, C. (2009). Dialectical thinking and coping flexibility: A multimetho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77(2), 471-494.
<https://doi.org/10.1111/j.1467-6494.2008.00555.x>
- Cross, S. E., Gore, J. S., & Morris, M. L. (2003). The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self-concept consistency,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5), 933-944.

- <https://doi.org/10.1037/0022-3514.85.5.933>
- Euh, H. & Choi, H. S. (2023). *Going against the Group for the Good of the Group: Antecedents of Reparation for War Victims*.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Hayes, A. F. (2022).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3rd ed.). Guilford Publications. Retrieved from <https://www.guilford.com/books/Introduction-to-Mediation-Moderation-and-Conditional-Process-Analysis/Andrew-Hayes/9781462549030>
- Hogg, M. A. (2007). Uncertainty-identity theory.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9, pp. 69-126). Academic Press. [https://doi.org/10.1016/s0065-2601\(06\)39002-8](https://doi.org/10.1016/s0065-2601(06)39002-8)
- Hogg, M. A. (2021). Self-uncertainty and group identification: Consequences for social identity, group behavior, intergroup relations, and society. In B. Gawronski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64, pp. 263-316). Academic Press. <https://doi.org/10.1016/bs.aesp.2021.04.004>
- Ji, L. J., Khei, M., Yap, S., Wang, X., Zhang, Z., & Hou, Y. (2021). Cultural differences in the construal of suffering and the COVID-19 pandemic.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2(6), 1039-1047. <https://doi.org/10.1177/1948550620958807>
- Jung, J., Hogg, M. A., & Lewis, G. J. (2018). Identity uncertainty and UK - Scottish relations: Different dynamics depending on relative identity centrality.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21(6), 861-873. <https://doi.org/10.1177/1368430216678329>
- Jung, J., Hogg, M. A., Livingstone, A. G., & Choi, H. S. (2019). From uncertain boundaries to uncertain identity: Effects of entitativity threat on identity-uncertainty and emigra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9(10), 623-633. <https://doi.org/10.1111/jasp.12622>
- Kitayama, S., Duffy, S., & Uchida, Y. (2007). Self as cultural mode of being. In S. Kitayama & D. Cohen (Eds.), *Handbook of cultural psychology* (pp. 136-174). The Guilford Press.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Guilford Press.
- Leach, C. W., van Zomeren, M., Zebel, S., Vliek, M. L. W., Pennekamp, S. F., Doosje, B., Ouwerkerk, J. W., & Spears, R. (2008). Group-level self-definition and self-investment: A hierarchical (multicomponent) model of in-group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1), 144-165. <https://doi.org/10.1037/0022-3514.95.1.144>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al variation in the self-concept. In J. Strauss & G. R. Goethals (Eds.), *The self: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pp. 18-48).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1-4684-8264-5_2
- Nisbett, R. E., Peng, K., Choi, I., & Norenzayan, A. (2001). Culture and systems of thought: Holistic versus analytic cognition. *Psychological Review*, 108(2), 291-310. <https://doi.org/10.1037/0033-295X.108.2.291>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https://doi.org/10.1080/00273170701341316>
- Sani, F. (2005). When subgroups secede: Extending and refining the social psychological model of schism in grou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8), 1074-1086. <https://doi.org/10.1177/0146167204274092>
- Tajfel, H. (1975). The exit of social mobility and the voice of social change: Notes on the social

-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Social Science Information*, 14(2), 101-118.
<https://doi.org/10.1177/053901847501400204>
- Tajfel, H., & Turner, J. C. (1986).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G. A. William & W. Stephe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276-293). Nelson-Hall Publishers.
- Taras, V., Sarala, R., Muchinsky, P., Kimmelmeier, M., Singelis, T. M., Avsec, A., Coon, H. M., Dinnel, D. L., Gardner, W., Grace, S., Hardin, E. E., Hsu, S., Johnson, J., Karakitapoğlu Aygün, Z., Kashima, E. S., Kolstad, A., Milfont, T. L., Oetzel, J., Okazaki, S., ... Sinclair, H. C. (2014). Opposite ends of the same stick? Multi-method test of the dimensionality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5(2), 213-245.
<https://doi.org/10.1177/0022022113509132>
-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 D., & Wetherell, M. S.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Basil Blackwell.
- Turner, J. C., & Reynolds, K. J. (2012). Self-categorization theory. In P. A. M. Van Lange, A. W. Kruglanski,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 (pp. 399-417). Sage Publications Ltd.
<https://doi.org/10.4135/9781446249222.n46>
- Vignoles, V. L., Owe, E., Becker, M., Smith, P. B., Easterbrook, M. J., Brown, R., González, R., Didier, N., Carrasco, D., Cadena, M. P., Lay, S., Schwartz, S. J., Des Rosiers, S. E., Villamar, J. A., Gavreliuc, A., Zinkeng, M., Kreuzbauer, R., Baguma, P., Martin, M., . . . Bond, M. H. (2016). Beyond the 'east-west' dichotomy: Global variation in cultural models of selfhood.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45(8), 966-1000.
<https://doi.org/10.1037/xge0000175>
- Wagoner, J. A., Antonini, M., Hogg, M. A., Barbieri, B., & Talamo, A. (2018). Identity centrality, dimensions of uncertainty, and pursuit of subgroup autonomy: The case of Sardinia within Ital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8(10), 582-589.
<https://doi.org/10.1111/jasp.12549>
- Wagoner, J. A., Belavadi, S., & Jung, J. (2017). Social identity uncertainty: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construct validity. *Self and Identity*, 16(5), 505-530.
<https://doi.org/10.1080/15298868.2016.1275762>
- Wagoner, J. A., & Chur, M. (2024). Domains of uncertainty, identification processes, and exit intention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Advance online publication.
<https://doi.org/10.1177/1368430223121504>

1 차원고접수 : 2024. 01. 03.

수정원고접수 : 2024. 03. 25.

최종게재결정 : 2024. 04. 08.

Effects of Social Identity Uncertainty and Self-Construal on Ingroup Identification and Intention to Leave the Ingroup: A Test of Moderated Mediation

Ocka Jeong Hoon-Seok Choi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a moderated mediation model that stipulates an interaction of the two subcomponents of social identity uncertainty (identity-uncertainty and membership-uncertainty) and individuals' self-construal in predicting ingroup identification (i.e., national identification), which in turn predicts intention to leave the ingroup (i.e., South Korea). We surveyed a total of 121 South Korean undergraduates and found that identity-uncertainty predicts the exit intention via ingroup identification only among individuals with an independent self-construal. By contrast, no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found when the model included membership-uncertainty as a predictor.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on social identity uncertainty are discussed.

Key words : social identity uncertainty, self-construal, ingroup identification, intention to leave the ingroup